

세라믹 증공사 접촉막을 이용한 CO₂ 흡수 특성

이홍주, Edoardo Magnone, 박정훈[†]

동국대학교

(pjhoon@dongguk.edu[†])

산업혁명 이후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CO₂ 배출이 증가하였고, 이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야기하였다. 접촉막 흡수 공정은 기체와 액체의 독립적인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충전탑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말동반, 범람, 편류, 거품 등의 현상 없이 흡수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CO₂ 포집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에 비해 화학적, 열적 안정성이 뛰어난 세라믹 소재의 증공사막을 상전이방적법으로 제조하고, 발수 코팅 방법으로 표면을 소수성으로 개질하였다. 증공사막은 SEM, 접촉각 측정 방법 등을 통해 특징을 확인하였고, CO₂ 흡수 실험을 진행하였다. 기체와 액체의 유량에 따른 CO₂ 흡수량의 변화 경향을 통해 접촉막 흡수 장치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.

사사 :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(미래창조과학부)의 재원으로 (재)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연구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(No. 2014M1A8A1049314)